

三國史記·三國遺事に 나타난 兒童期 考察

The Study of Childhood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과정 신 양 재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Yang Jai Shin

〈 목 차 〉

I. 序 論	III. 結論 및 論議
II. 三國史記·三國遺事に 나타난 兒童期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ions of childhood and the practices about childrearing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is the historical method and the literatures of analysis are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and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conceptions of childhood in its boundary were that the point at which childhood ended was the age of 15. And the conceptions of childhood in its demension were that the age of 10 was important demension epitemologically and the age of 15 was important in political dimension. Also, there were several practices of childrearing in the Three States. First the sweddling clothes were in use. Second, a child was carried on adult's back. Third, parents prayed for giving birth to their child, and had a dream of conception. finally, there were the child welfare works. Through this study we can have access to the understanding about cultural transmission process of childrearing in Korea.

I. 序 論

1. 問題提起

兒童養育이란 아동의 심신유지에 필요한 保護와 아울러 아동이 유능하고, 사회적이며, 도덕적인 인

간이 되도록 하는 社會化를 포함하는(Gecas, 1976) 일련의 활동이다. 이러한 양육활동은 그 대상이 되는 兒童에 대한 概念化에 따라서 양육의 목적이나 방법이 달라진다(Goodnow, 1982). 현대의 兒童期 개념화는 '未完成의 兒童'이라는 像에 중심을 두고 있다(D'Alessio, 1990). 이러한 미완성의 아동이라는 현

대의 관점에는 完成이라는, 도달해야 하는 上位의 境地를 상징함으로 해서, 자연히 兒童期라고 하면 이러한 경지로 나아가는 道程의 한 段階로 본다 (Archard, 1993). 따라서 이러한 개념화는 아동의 교육가능성을 강조하게 했으며, 아동기의 教育과 保護를 중요시하는 공통된 인식을 사회에 마련케 했다 (D'Alessio, 1990). 그러나 이러한 아동기 개념은 서구의 자본주의 사상 전통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전된 것이다 (Goodnow, 1985). 즉 자본주의는 재생산이라는 측면에 근거함으로써 성장과 발달이 양적으로 계속 증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추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연케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아동양육에도 영향을 주어 아동의 교육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가 자신들보다는 장차 더 풍요롭고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했으며, 일반 상식이나 학문적 풍토에 있어서도 더욱 競爭의 이고, 더욱 獲得의이며, 더욱 未來指向의 人間像을 강조하게 했다 (Loof, 1979).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모들의 방향감과 목표의식의 상실이나 자녀교육역할 포기(金在恩, 1989; 金智子 外 4人, 1992) 등은 서구사회의 전통에서 발전된 아동기 개념과 우리 사회의 文化傳承된 내용간의 相馳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동 연구에 있어서 문화적 영향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예라 볼 수 있다. 高麗史를 중심으로 兒童養育을 考察한 前 研究(愼良宰, 1994)에서도 논의한 바와같이 아동 연구에 있어서 文化的 脈絡의 理解는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文化라는 것은 歷史的 展開過程 안에서 유지·변형된다는 점에서 볼 때 아동 연구에 있어서 歷史的 接近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런데 한국전통사회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규명된 韓國 傳統社會에 있어서 兒童期 概念化를 보면 아동의 본성은 善하며, 그렇기 때문에 本然之性에 되돌아가기 위해서 學問과 修養의 필요성이 설정되는 것이며, 신체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道德的·人格의 측면에서 성인과 동일시하는 成人縮小的 存

在로 보았다(柳點淑, 1991; 金玉蓮, 1992; 李貞德·宋洵, 1993)고 한다. 전통사회의 아동기 개념화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에 대한 一般的 像을 알 수 있게는 하나, 실제 행태로 나타나는 보다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즉 兒童期 境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동기를 道德·法律 次元, 認識論的 次元, 政治的 次元 등의 여러 차원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차원 안에서 아동기 내의 年齡段階區分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된 아동기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지금까지 아동양육과 관련된 역사적 접근의 기존 선행연구들(禹英姬, 1989; 柳點淑, 1987, 1991; 孫直銖, 1981, 1993; 金玉姬, 1985; 池英淑, 1989; 李貞德·宋洵, 1993)의 대부분이 朝鮮時代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以前 時代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이다. 따라서 아동양육의 傳承의 過程의 파악을 위해서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적 시기에 관한 규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高麗史를 중심으로 高麗時代의 아동양육 일부를 고찰 한 진 연구(愼良宰, 1994)에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三國史記·三國遺事에 나타난 古代社會의 아동양육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들 문헌은 편찬 당시 이미 零星해진 자료를 토대로 출판한 까닭에 古代社會 전반의 이해를 위해서는 매우 疏略한 것이기 때문에(崔淑卿, 1972), 여기서 아동과 관련된 자료는 매우 최소하여 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三國史記와 三國遺事は 중국이나 일본의 일부 기록을 제외하고는 우리 조상에 의해서 저술된 유일한 古代史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료적 가치를 갖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を 통하여 아동관련 記事를 분석·연구하는 작업은 古代社會의 아동생활 일부를 考證한다는 역사적 意義뿐만 아니라, 兒童養育의 傳承의 過程의 면모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兒童養育의 傳承過程 緝明의 일환으로 古代社會의 兒童養育에 접근하기 위해서 三國史記·三國遺事に 나타난 兒童期를 考察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갖는다. 첫째, 三國史記·三國遺事に 나타난 당시의 兒童期 範圍와 年齡區分은 어떠했는가? 둘째, 아동활동 가운데 놀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三國史記·三國遺事に 나타난 당시에 행해진 아동 놀이는 무엇인가? 셋째, 三國史記·三國遺事に 나타난 당시의 兒童養育實際은 어떠했는가?

2. 研究方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古代社會에 관한 史料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を 분석하고자 한다. 이 두 문헌을 분석문헌으로 선정한 것은 첫째, 문화적 맥락 이해에 있어서 文化 內部的 觀點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金泳燦, 1982)에서 볼 때, 三國史記와 三國遺事は 우리 선조에 의해서 기술된 古代에 관한 史料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둘째, 實際 행해진 行態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는 본 연구의 범위에 적합한 자료라 보았기 때문이다.

三國史記는 高句麗·百濟·新羅의 역사에 관한 문헌으로 高麗 仁宗 때 왕명에 의해서 金富弼 등이 古記·遺籍 혹은 中國의 여러 역사기록에서 뽑아 편찬, 간행한 것으로 本紀·年表·志·列傳의 순서로 되어 있다. 三國遺事は 高麗 忠烈王 때 普覺國師 一然이 저술한 史書로, 高句麗·百濟·新羅의 遺史를 모아 삼국의 年表와 더불어 紀異·興法·塔像·義解·神呪·感通·避隱·孝善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 문헌은 저자가 佛敎徒임으로 해서 佛敎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많으며, 三國史記에서 빠진 古記를 원형대로 모아 기록한 특색을 갖고 있다.

三國史記는 朝鮮史學會本을, 李丙熙(1984)의 번역본(正德本을大本으로 함) 및 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1958)의 번역본(史學會本과 正德本을大本으로 함)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三國遺事は 崔南善 編의 三國遺事を, 李民樹(1994)의 번역본(正德本을大本으로 함) 및 북한의 리상호(1960) 번역본(正德本을 표준으로 하여 여러 본들을 참고로 하여 번역)을 참조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우선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안에서 아동이나 양육과 관련된 사례를 추출하였다. 추출에

있어서는 年齡이 명시되어 있는 記事와 幼·兒·孺·生·養·育 등과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어 아동이나 아동양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 사례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사례를 아동기 범위 및 연령기대, 아동놀이, 아동양육실제 등의 問題領域別로 分類·分析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年齡이 記述된 사례를 분류하고,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아동기 종료를 나타내는 경계 연령을 알아내어 당시의 兒童期範圍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境界年齡 範圍내에서 兒童이 행한 活動과 狀況 記述로부터 당시에 가졌던 연령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내어 그 年齡區分을 추정하였다. 또한 놀이활동이 기술된 사례를 분류하여, 이로 부터 당시 아동놀이의 種類와 特性을 알아 보았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양육 행태가 기술된 사례로부터 당시에 행해진 兒童養育實際를 알아보고 그 養育特性을 규명하였다.

II. 三國史記·三國遺事に 나타난 兒童期

1. 兒童期 範圍와 活動

古代社會의 兒童期 考察을 위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の 기록에서 우선 兒童期 範圍와 年齡區分, 그리고 兒童期 活動으로서 놀이 측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고대사회를 추측하기에는 사료의 전반적인 부족에 의한 제약으로, 아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記事는 희소하였다. 그러나 추출된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兒童期 範圍를 한정하는 境界年齡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근거로 하여 볼 때 대체로 15세경이 그 경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① 秋九月 徵何瑟羅人年十五已上 築城於泥河(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 干 11年)
- ② 王發國內男女年十五已上 修理宮室(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烽上王 9年)
- ③ 發漢水東北諸部落人年十五歲以上 修營慰禮城(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41年)

- ④ 發國內年十五歲已上 設關防(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辰斯王 2年)
 ⑤ 徵北部人年十五歲已上 築沙峴耳山二城(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12年)
 ⑥ 徵漢北州郡民年十五歲已上 築雙峴城(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鈴王 23年)

이상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라에서 성을 쌓거나, 궁실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서 나이 15세 이상되는 자를 징발하였다는 내용에서 아동기의 경계가 15세 경이 기준이 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귀족계급에 관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年齡境界가 나타났다.

- ① 王會群臣於臨海殿 王族膺廉年十五歲預坐焉(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憲安王 4年)
 ② 公年十五歲爲花郎(三國史記 卷41 列傳1 金庾信)
 ③ 時斯多含年十五六 請從軍 王以幼少不許 其請勤而志確 遂命爲貴幢裨將(三國史記 卷44 列傳4 斯多含)
 ④ 及女年二八 欲下嫁於上部高氏(三國史記 卷45 列傳5 溫達)
 ⑤ 年至十五 授差執事(三國遺事 卷1 紀異2 桃花女鼻荊郎)

①에서 왕족 金膺廉은 왕이 臨海殿에 모든 신하를 모았을 당시 15세로서 자리에 함께 참여했고, ②에서 金庾信의 나이 15세에 花郎이 되었고, ③에서 斯多含은 나이 15·6세로서 從軍하기를 청하였으나 왕

이 어리다 하여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에게 직위를 주어 허락했으며, ④은 溫達에 관한 일화로 여기에서 平岡王은 딸이 16세가 되매 上部高氏에게 시집을 보내려 했고, ⑤에서 鼻荊郎은 15세에 執事벼슬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전술된 평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15세는 중요한 연령경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5세가 중요한 경계 연령이었음은 高麗史 研究(慎良宰, 1994)에서도 일치하고 있다.¹⁾ 또한 朝鮮時代의 人間發達段階에 관한 연구(柳點淑, 1989)에서 小學과 禮記를 근거로 하였고, 또한 당시의 교육제도 상으로 8세에 小學 學宮에 입학하고 15세가 되면 大學에 들어가 修學했다는 점과 성인으로서 들어서는 儀式인 冠禮의 일반적인 연령이 15세이었던 점을 들어 아동기(童蒙期) 경계연령을 15세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15세 이후이면 사회적으로 성인으로서 인정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15세 이전의 연령에는 어떠한 연령구분이 당시 사회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記事에 기술된 연령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에 15세 이전의 연령에서 행할 수 있었던 活動 分析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 사료에 명기된 연령에 반드시 그러한 행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게 기술된 이면에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동연령에 대한 개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연령구분과 아동 개념화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록 중에서 우선 15세를 기준으로 하여 연령이 명시된 사례를 모두 추출하여, 이 중에서 王位繼承 사례²⁾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고, 동일 연령이 반복되어 나

1) 다음과 같은 記事에 일치하는 기록이 있다.

高麗史 卷79 志33 食貨2 戶口
 高麗史 卷81 志35 兵1 兵制
 高麗史 卷121 列傳34 金之錫傳

2) 연령이 명기된 왕위계승 기록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었다.

① 即位 號居西干 時年十三(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1 赫居世 居西干)
 ② 眞興王立……時年七歲……王幼少 王太后攝政(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③ 王即位 時年八歲 太后攝政(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惠恭王)

타난 記事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憂助年七歲……須臾瘡潰 公謂偶爾 不甚異之 (三國遺事 卷4 義解5 惠空)
- ② 年甫七歲 巖然異常 自作弓矢 射之 百發百中(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東明 聖王)
- ③ 至年十二 將隨海舶入唐求學(三國史記 卷46 列傳6 崔致遠)
- ④ 年至十二歲 投金山寺崇濟法師講下 落彩請業³⁾ (三國遺事 卷4 義解5 眞表傳簡)

①에서 憂助(惠空)의 나이가 7세인 데도 불구하고 天真公의 종기를 낳게 하였는데 공은 이를 우연으로 생각했고, ②에서 朱蒙은 나이 겨우 7세에 보통사람과 달라 제 손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 번 쏘면 백 번 맞았었고, ③에서 崔致遠은 12세에 당나라로 留學갔고, ④에서 眞表는 12세에 法師의 문하에 들어가 出家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①과 ②의 기사에서 연령이 7세인 경우에 관한 일화로서, 기술된 내용에 의거해 보면 이들이 행한 행적에 대해서 우연으로 생각했거나 보통의 경우와 달리 여겨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연령시기는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고 보는 인식이 그 바탕에 있다고 추측된다. 이에 반해 12세 留學이나 出家의 뜻을 세우고, 이에 대해 아버지의 허락이 뒤따르고 있는 ③과 ④의 일화를 통해서, 이 시기가 자신의 장래 결정과 같은 중대사를 스스로 결정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로 인정하는 인식이 그 기저에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을 확고히 하기에는 아직은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추후 보다 많은 자료의 증거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런데 高麗時代 研究(愼良宰, 1994)에서 보면, 高麗史에서는 10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의 강제력이 그대로 행사되기 보다는 예외로 간주되어 융통성있게 적용되었고,⁴⁾ 또다른 기록에서 양육할 자가 없는 경우에 10세까지 官家에서 양육을 관여하나 10세 이상된 자에게는 그 소원하는 바에 따라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예⁵⁾가 있다. 이로부터 10세를 경계로 하여 그 이후의 연령은 자신 신변에 관한 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식력을 가정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또한 禮記에 따르면 7세는 애처롭고 죄가 있어도 刑이 면제된다고 하며 10세는 幼學하다고 되어 있다.⁶⁾ 그리고 朝鮮時代에 관한 柳點淑(1989)의 연구에서는 10세를 기준으로 無律期에서 自律期로 이행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아동기 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당시에 행해졌을 놀이에 관한 기록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に 매우 희소하였다. 발견된 사례는 三國史記 高句麗 東明聖王과 琉璃明王 그리고 三國遺事の 武王 일화에서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年甫七歲 巖然異常 自作弓矢射之 百發百中⁷⁾(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東明 聖王)
- ② 幼年出遊陌上彈雀 誤破波水婦人瓦器(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琉璃明王)
- ③ 以著菘餉閭里群童 群童親附之 乃作謠 誘群童而唱之云……童謠滿京 達於宮禁 (三國遺事 卷2 武王)

④ 即位時年十三歲 阿兵部令彥昇攝政(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⑤ 王薨 繼位年十三歲 軍國政事一切委於佐平解仇(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三斤 王)

⑥ 時年十二歲……即位稱王(三國遺事 卷1 紀異2 高句麗)

⑦ 以年七歲 太后垂簾聽政(三國史記 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3) 같은 내용의 기록이 卷4 義解5 關東楓岳鉢淵藪石記에는 年至十二 志求出家 父許之로 기록되어 있다.

4) 高麗史 卷85 刑法 恤刑

5) 高麗史 卷80 志34 食貨3 賑恤

6) 人生十年曰幼學 二十曰弱冠……七年曰悼 悼與耆 雖有罪 不加刑焉

7) 三國遺事 卷1 紀異2 高句麗 103에도 年甫七歲 巖然異常 自作弓矢射之 百發百中 이라고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

①에서 朱蒙이 7세에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다는 점, ②에서 琉璃가 거리에서 놀 때 참새를 쏘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③에서 靉童이 노래를 지어 동네 아이들에게 이를 부르게 했다는 일화에서 당시 아이들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시생활에서 사냥은 중요한 활동이 되는데, ①과 ②의 예에서 사냥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어릴 적부터 놀이를 통해서 연마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놀이가 성인활동의 준비로서 갖는 문화화 기능(Schwartzman, 1978)을 당시에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兒童養育實際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실린 兒童養育과 관련된 있는 記事로는 우선 젓먹이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들어 볼 수 있다.

- ① 使者取於襁褓中⁸⁾ (三國史記 卷50 列傳10 弓裔)
- ② 初蒼生孺襁時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 ③ 殷誠抱兒來告曰……裹以襁褓 藏諸狴座下 省省而去(三國遺事 卷3 塔像4 三所觀音 衆生寺)
- ④ 乃負兒歸醉山北郊(三國遺事 卷5 孝善9 孫順埋兒 興德王代)

三國史記에 기록된 ①은 弓裔가 갓 태어날 당시의 일화로 왕의 명령을 받아 襁褓에 있는 弓裔를 빼앗았다는 내용이며, ②는 甄萱의 어린 시절의 일화에 관한 기록으로 ①과 ②의 내용에서 젓먹이 시기에 강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③은 三國遺事의 崔殷誠의 일화로서, 甄萱의 습격에 의한 난리를 피하기 위해서 태어난지 몇 달 안되는 자신의 아이를 절로 안고 와서는, 아이를 襁褓로 싸서 부치 앉은 자리에 감추며 보호를 부탁하는 대목으로, 여기에서도 역시 襁褓의 사용을 알 수 있다. 한편 ④는

어머니 봉양을 위한 孫順의 효행에 관한 일화로서, 여기서 아이를 업어서 데리고 다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내용은 高麗史에서도 발견된다.⁹⁾ 史料에서 발견된 이러한 襁褓 사용과 업는 행위는 현재에도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양육행태는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현대에까지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사료에 나타난 또다른 아동양육 관련 내용으로, 자식 낳기를 위해서 祈禱를 올리는 행태가 발견되었다.

- ① 扶餘王解夫妻老無子 祭山川求嗣……王喜曰 此乃天養我令胤乎 乃收而養之(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始祖東明聖王)
- ② 王以無子 禱於山川(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7年)
- ③ 羅季天成中 正甫崔殷誠·久無胤息 詣茲寺大慈前祈禱 有娠而生男(三國遺事 卷3 塔像4 三所觀音 衆生寺)
- ④ 其父歷官清要 絕無後胤 乃歸心三寶 造于千部觀音 希生一息(三國遺事 卷4 義解 5 慈藏定律)
- ⑤ 上喜謂左右曰 此豈非天遺我以令乎 乃收養之(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脫解尼師 今)
- ⑥ 隣兵奄至·事急矣 赤子累重 不能俱免 若誠大聖之所賜 願借大慈之力 覆養之 令我父子再得相見 (三國遺事 卷3 塔像4 三所觀音 衆生寺)

①은 扶餘王 解夫妻가 늙도록 아들이 없으므로 아들 낳기를 바라 山川에 기도하였다는 내용이며, ②는 高句麗의 山上王이 아들이 없어 山川에 기도하였다는 내용이고, ③은 新羅 말년에 崔殷誠이 오랜동안 자식이 없으므로 절을 찾아 觀世音菩薩에 기도를 올려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이고, ④는 新羅僧 慈藏律師의 일화로서 그의 아버지가 대 이을 자식이 없어 불교에 귀의하여 千部觀音에 자식 낳기를 회구하였다

8) 三國遺事 卷2 後百濟 甄萱에도 使者取於襁褓中이라고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

9) 高麗史 卷121 列傳34 李東郊의 妻 裴氏

高麗史 卷122 列傳34 康好文의 妻 文氏

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록들로 부터 자녀출생을 신앙적 관념으로 해석하는 출생관이 발견된다. 이러한 점은 ①의 扶餘王 解夫婁가 아이를 얻게 되면서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라는 그 상황에 대한 그의 말로 부터도 알 수 있으며, ⑤에서 脫解王道 아이(金闕智)를 얻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출생을 하늘에 의지하는 신념체계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⑥에서 甄萱이 습격하여 성안이 혼란스럽게 되자 崔殷誠은 아이를 안고 절에 와서 말기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주신 자식이라 하며 자비로운 힘을 빌리어 보호하길 바란다는 말에서도, 출생에 대한 이러한 신앙적 관념체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①, ②, ⑤의 예에서 天神, 地神, 祖神을 숭배하던 古代社會의 信仰體系(孫仁洙, 1993)와 자녀출생을 연관지었던 당시의 행태를 발견할 수 있다. ③, ④, ⑥의 예에서 佛教傳來의 영향을 알 수 있다. 佛教는 高句麗의 경우 小獸林王 2년(A. D 372)에, 百濟의 경우 枕流王 元年(384)에, 新羅의 경우 5세기에 전래되었고, 이를 통해서 각 부족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유민간신앙을 통합하고 계몽할 수 있는 윤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徐景洙, 1990). 특히 여기서는 現世의 利益이 主眼이 되는 觀音信仰이 자녀의 出生과 成長에 투영되고 있는 면이 보인다.

자녀출생을 위해 祈禱를 하는 이와같은 行態는 高麗時代의 기록에서도 발견되고 있다.¹⁰⁾ 또한 朝鮮女俗考에서 李能和(1990)는 이러한 嗣續觀念은 왕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에서도 후사가 없어 기도를 올리는 예는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 胎夢에 관한 記事가 여

러 부분에서 발견되고 있어, 胎夢 역시 당시의 兒童 養育의 한 행태로 볼 수 있다.

- ① 舒玄庚辰之夜 夢焚惑鎮二星降於己 萬明亦以辛丑之夜 夢見童子衣金甲 乘雲入堂中 尋而有娠 (三國史記 卷41 列傳1 金庾信)
- ② 妻氏自夢之日有娠 既誕·因名竹旨(三國遺事 卷2 孝昭王代 竹旨郎)
- ③ 母忽夢星墜入懷 因有娠(三國遺事 卷4 義解5 慈藏定律)
- ④ 初母夢流星入懷 因而有娠 及將產 有五色雲覆地 (三國遺事 卷4 義解5 元曉不羈)
- ⑤ 初母夢吞青色珠而有娠(三國遺事 卷5 神呪6 明朗神印)

①에서 金庾信 아버지 舒玄은 별 둘이 자기에게로 내려 오는 꿈을 꾸었고, 그의 어머니 역시 동자가 금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방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김유신을 낳게 되었고, ②에서 竹旨郎의 아버지 述宗公이 竹旨嶺에서 만난 處士와의 인연으로 處士가 죽던 날 그의 꿈을 꾸게 되고, 이어서 述宗公의 부인도 處士 꿈을 꾸는 날로부터 태기가 있어 竹旨郎을 낳게 되었고, ③에서 新羅僧 慈藏律師의 어머니가 꿈에 별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그를 낳게 되었고, ④에서 元曉大師의 어머니가 별이 떨어져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로 인하여 태기가 있게 되어 그를 낳았고, ⑤에서 明朗法師의 어머니가 푸른 구슬을 삼키는 꿈을 꾸고 태기가 있어 그를 낳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胎夢을 갖는 행태들은 高麗時代의 기록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¹¹⁾ 朝鮮時代女俗에 관한

10) 高麗史 卷93 列傳3 崔承老
高麗史 卷99 列傳12 李純佑
11) 高麗史 卷 88 列傳 1 獻貞王后黃甫氏
高麗史 卷 88 列傳 1 恭毅太后任氏
高麗史 卷 92 列傳 5 崔凝
高麗史 卷 99 列傳12 王世慶
高麗史 卷103 列傳16 金慶孫
高麗史 卷104 列傳17 金方慶

李能和(1990)의 저술에서도 胎夢의 習例를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 왕이 홀아비·과부·고아·자식없는 노인(鰥寡孤獨)을 위해서 행한 救恤 기록으로부터 당시 행해진 아동양육의 일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新羅 儒理王(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儒理尼師今 5年), 奈勿王(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2年), 炤知王(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王 10年), 善德王(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元年), 聖德王(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7年), 景德王(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景德 14年), 高句麗의 太祖大王(三國史記 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66年), 故國川王(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6年), 百濟의 比流王(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比流王 9年)의 記事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왕의 仁政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한 政治의 目的이 병행된 것으로, 그 목적상 鰥寡孤獨과 질병자에 대한 구체책이 중심이 되어 나타났는데, 이것은 儒敎와 佛敎에서 비롯된 仁義와 慈悲思想에 기초하고 있다(李素希, 1989)고 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III. 結論 및 論議

古代社會의 兒童期 考察을 위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록에서 우선 아동기 범위, 아동기활동 그리고 아동양육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고대사회를 추측하기에는 사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함으로 해서, 이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記事도 희소하였으나, 전승적 과정의 면모를 파악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관련 자료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범위를 한정시켜 주는 경계연령은, 기록을 근거로 하여 볼 때 15세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계구분은 高麗와 朝鮮時代에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또한 15세 이전에 관한 연령으로는 7세와 12세에 관한 사례가 반복되어 나온 바, 이를 高麗時代와 朝鮮時代의 연구결과를 함께 참조하여 볼 때, 10세를 기준으로 사회에서 갖는 연령기대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기의 한 활동으로서 놀이에 관하여, 三國史記와 三國遺事に 나타난 내용을 보면 사냥과 같은 성인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능 연마가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셋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に 나타난 兒童養育實際로는 襁褓使用, 업기, 자녀출생을 비는 祈禱, 胎夢 그리고 兒童救護活動 등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강보의 사용과 업어 주는 행태는 현재까지 전승된 양육방식이다.

그런데 아동기의 개념화에 대하여 Archard(1993)는 아동기의 연령경계(boundary), 아동기의 차원(dimension), 아동기 연령구분(division)의 세 기본 측면에서 달리 조명해 보아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아동기 개념에의 명확한 규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에서 兒童期 境界란 아동기가 성인기와 구별되는 지점으로, 이는 사회에 따라서는 통과역이나 성년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결혼의 허용, 부모집으로 부터 독립, 自活의 책임부여와 연관되기도 한다. 또한 아동기의 차원은 아동을 이해하는 여러 각도로서, 특히 道德 혹은 法律 次元, 認識論의 次元, 政治的 次元은 현대 아동기 개념화에 있어서 중요한 차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아동은 도덕 혹은 법률적 차원에서 연령때문에 그들 행위에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인식론적 차원에서 아동은 미성숙때문에 성인의 이성이나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며, 정치적 차원에서 아동은 어려서 그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고 개념화하

高麗史 卷105 列傳18 趙仁規

高麗史 卷108 列傳21 金怡

高麗史 卷110 列傳23 金台鉉

高麗史 卷117 列傳30 鄭夢周

고 있다는 것이다(Archard, 1993).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본 분석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古代社會 당시에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10세 이후는 신변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식력을 갖고 있다고 보며,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15세가 기준이 되어, 경제 활동, 결혼, 병역, 정치참여를 할 수 있다고 개념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잠정적인 것으로서 이후에 다른 자료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하고, 아동기 내에서 또다른 연령기간과 규범적 기대가 있는가에 관한 문제도 계속 추구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상의 결론과 논의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라는 문헌적 한도 내에서 나온 것이므로 분석대상 자료가 그 사례의 양에 있어서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른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며, 高麗나 朝鮮 등의 다른 시대의 자료와의 연관성 속에서 더욱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사회의 아동양육이 현대에 어떠한 양태로 傳承 혹은 變形되어 兒童養育의 脈絡을 구성하고 있는가에 관한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兒童期 概念化를 次元別로 特定化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그 사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 특성이나 연령경계가 아동행동판단이나 양육역할을 수행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동기준으로써 작용된다는 점에서 볼 때에 그러하다. 그 예로 최근 부모행동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부모들은 子女 訓育을 할 때 어떤 반응행동을 나타내기에 앞서서 자녀 행동에 대한 판단과정을 선행시키는데, 이때 판단과정에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아동연령에 대한 規範的 기대나 信念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Dix & Grusec, 1985)고 한다. 그리고 부모들이 갖는 아동연령에 대한 신념이나 규범적 기대의 일부는 그 사회의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Dix, Ruble & Zambardo, 1989). 따라서 그 사회의 아동 연령에 대한 개념화와의 접근은 아동양육행동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兒童에 대한 부모의 知覺 연구에 있어서 Heider의 歸因理論과 같이 개인동기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 이상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제안(Gretarsson & Gelfand, 1988)이나, 아동기 개념화의 특정 내용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결정되고 전승되는가의 설명이 아동양육 연구에서 필요하다는 지적(D'Alessio, 1990)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兒童期 概念化와 아울러 兒童年齡에 대한 概念化를 次元別로 特定化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이와 더불어 養育行動과 연계하여 韓國 兒童養育傳統을 규명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 1) 三國史記, 景仁文化社 影印
———, 李丙燾 譯, 서울: 을유문화사, 1984
———,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譯, 서울: 신서원, 1990.
- 2) 三國遺事, 崔南善 編
———, 李民樹 譯, 서울: 을유문화사, 1994.
———, 이상호 譯, 서울: 신서원, 1990.
- 3) 金泳燦, 생활·문화·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82.
- 4) 金玉蓮, 유아교육사, 서울: 정민사, 1992.
- 5) 金玉姬, 조선조사회의 여사서를 중심으로 여성교육서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6) 金用淑, 한국여속사, 서울: 민음사, 1990.
- 7) 金在恩, 가정교육, 서울: 샘터, 1989.
- 8) 金智子·南承希·崔云實·郭魯儀·金海成, 미래를 향한 가정교육, 서울: 양서원, 1992.
- 9) 徐景洙, 불교철학의 한국적 전개, 서울: 불광출판부, 1990.
- 10) 孫仁銖, 한국교육사, 서울: 문음사, 1993.
- 11) 孫直銖, 조선시대 여성교육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1.
- 12) ———, 사소절에 나타난 전통 가정교육, 한국정신문화원 연구논총 93-18,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1993, 47-130.
- 13) 愼良宰, 고려시대 아동양육 연구 - 고려사를 중

- 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2, 1994, 149-162.
- 14) 禹英姬,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 본 자녀양육 - 동몽선습, 격몽요결, 사소절, 고암가훈을 중심으로 -,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15) 柳點淑, 조선후기 동몽교재의 내용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1.
- 16) ———, 조선시대의 인간발달단계 및 그 교육내용, 아동학회지, 10, 1989, 1-18.
- 17) ———, 사소절에 나타난 아동훈육법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 1987, 141-152.
- 18) 李能和, 金尙憶 譯, 朝鮮女俗考, 서울 : 동문선, 1990.
- 19) 李貞德·宋洵, 소학에 나타난 동몽기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1993, 157-168.
- 20) 李素希, 유아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형설출판사, 1989.
- 21) 池英淑, 다산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고찰, 성대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19, 1989, 275-295.
- 22) 崔淑卿, 고려이전,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한국여성사 I, 서울 : 이대출판부, 1972.
- 23) Archard, D., Children : Right & Childhood, N. Y. : Routledge, 1993.
- 24) D'Alessio, M., Social representation of childhood : an implicit theory of development, In G. Duveen & B. Lloyd, ed., Social represent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25) Dix, T.H. & J.E. Grusec, Parent attribution proces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I.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5.
- 26) Dix, T.H., D.N. Ruble & R.J. Zambardo,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ment, 60, 1989, 1373-1391.
- 27) Gecas V., The socialization and child care roles In F. I. Nye, ed.,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Beverlyhills : Sage Publication, 1976.
- 28) Goodnow, J.J., Everyday ideas about cognitive development, In J.P. Forgas, ed., Social conition, N. Y. : Academic Press, 1982.
- 29) ———, Change and variation in ideas about childhood and parenting, In I.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N. 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5.
- 30) Gretarsson, S.J. & D.M. Gelfand, Mothers' attribu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y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988, 264-269.
- 31) Looft, W.R., The psychology of more, American Psychologist 26, 1971, 561-565.
- 32) Schwartzman, H.B., Transformations : the anthropology of children's play, N.Y. : Plenum Press, 1978.